



세상의 끝, 아프리카 섬나라에서

모리셔스 선교사 최인규 박정희 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은 세상의 끝,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 입니다.

지금 모리셔스는?

일반적으로 모리셔스는 11월-2월까지 열대성 저기압인 사이클론이 3-4개 정도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세계적인 기후이변으로 사이클론이 한개도 오지 않아서 섬 전체가 극심한 가뭄과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뭄으로 인한 단수와 단전이 계속 되고 있으며, 폭염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모리셔스 주택들이 에어컨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한 소식들

- * 모리셔스 교회 연합 모임 시작
 - * 모리셔스는 힌두교가 다수인 사회로, 인구의 30%정도만이 기독교인이고, 그것도 대부분이 카톨릭(천주교)인 상황에서, 개신교 인구는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 * 이런 상황 가운데에, 모리셔스안의 교회들이 모리셔스 장로교단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기도회, 수련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mission-mauritius.tistory.com/>

더 많은 사진과 동영상, 설명이 포함된 선교편지를 위의 링크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선교편지를 종이 우편이 아닌 카톡으로 받기 원하시면 카톡으로 알려 주세요.



왼쪽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최인규 선교사의 카카오톡과 연결됩니다



* 또한 작년말부터 모리셔스안에 영어를 사용하는 교회들 간에 친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임 끝에 가능하다면, 올해부터는 연합하여 찬양집회등을 개최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안타까운 소식:

- * 지난 3년간 최인규 선교사와 동역하였던, 데얀 부목사님이 6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 12월에 성 콜롬바교회에서 장례예배를 드렸습니다.
- * 데얀 목사님은 세르비아 태생으로 청소년 시절에는 공산당원으로 활동하다가, 20대에 케냐로 이주하여 부인을 만나 결혼하고, 그후 모리셔스로 이주하여서, 지난 23년간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그리고 마지막 3년은 부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었습니다.
- * 데얀 부목사님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데얀과 부인 와이리무 장로님은 지난 20년간 아프리카의 여러나라에서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워서, 현재는 모두 성장하여, 남아공, 짐바브웨, 독일, 모리셔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 * 데얀 목사님은 작년초에 우연히 폐암을 발견하였고, 발견한 시기에 말기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갔을 당시와 그전에도 모리셔스안에 영상의학기사 (CT, MRI 등)이 없었기 때문에, 병환을 늦게 발견하여서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 한국어 교실: 모리셔스의 힌두교, 무슬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실이 이제 반이 3개 (기초,초보,중급반)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 * 박정희 선교사는 지난 12월 한국을 방문하여서,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계속 추적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은 향후 한국방문시 지속적으로 검진 받기로 하였습니다.

기도제목들

- * 모리셔스 청소년, 청년 한국 방문을 위한 기회가 열리게 인도 해주세요.- 한국교회의 예배와 찬양,기도를 체험해서, 모리셔스 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 있도록, 필요한 초청교회,예산등이 잘 마련될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 * 모리셔스 장로교단의 산하 6개 교회의 청년들이 하나님안에서 건강한 미래를 꿈꾸게 해주세요.
- * 2025년 10월에 만료되는 거주비자 갱신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모리셔스 정부가 2024년 11월에 바뀌어서 모든 상황이 불확실합니다.

언제나 모리셔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최인규,박정희,최주은,최주아 선교사 드림



선교편지를 종이 우편이 아닌 카톡으로 받기 원하시면 카톡으로 알려 주세요.



왼쪽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최인규 선교사의 카카오톡과 연결됩니다